

경제

올 노사협상 '타임오프' 태풍의 눈 기아차 노조 쟁의 결의

〈근로시간면제〉

7월 시행 앞두고 '전임자 축소' 갈등 증폭

노동계 반발 파업 ... 정부 "일벌백계" 강경

광주·전남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1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에서 15일 중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순천 현대하이스코는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고, 광주 평동공단 입주업체인 디에스씨는 15일 파업을 예고한다. 이유는 노조 전임자 문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1일 7차에 걸친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기아차 노조의 입단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사 단체협상 사항인데 전국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가 올해 단체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노동계는 "타임오프는 노조 말살 정책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 노조의 입단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사 단체협상 사항인데 전국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가 올해 단체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결의와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어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열고 전임자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조합원이 2500명 가량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타임오프가 적용되면 근로면제시간이 연간 1만 시간과 전임자 5명으로 제한된다.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 활동 시간만으로도 연간 1만시간이 넘는다"며 "이는 사실상 전임자를 할 명도 없을 수 없다는 것으로 노조 운영 자체가 마비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전임자 문제는 현 집행부와 강경파 노조원간 노노갈등으로 타임오프가 전면에서 떠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노조 전임자가 18명에서 7명으로 3분의 2 가량이 줄게 돼 손봉

고 불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순천 현대하이스코도 14일부터 노조 교섭위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반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노사는 최근 주요 사업장 중 처음으로 노조 전임자 수를 7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에 따라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법적인 근거 없이 유지됐던 월차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쌍용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회사의 노사 협상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오는 7월 임금 지급이 금지된 후 노조의 압박에 굴복해 법정 한도 이상으로 전임자를 허용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만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정복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노위 쟁의 조정 신청 ...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잘 나가던 기아차가 '파업' 압력에 직면했다. 쟁쟁한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대치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를 결의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정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1일까지 사측에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들어 모두 불참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뜻이 없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시사해왔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일부터 특근 거부에 돌입했으며,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 및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기아차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된 이유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 측이 전임자 급여지원 요구를 수정하기 전에는 교섭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노조는 전임자 관련 조항은 입단협 내용의 일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입락에서는 사측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전임자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간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근 거부에 이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R과 이달부터 본격 출고가 이뤄지고 있는 신차 K5 등 기아차의 주요 인기차종의 출고대기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복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플랜트 기술력 대단하다" 주한 중동지역 4개국 대사 여수 GS칼텍스 '중질유분해 탈황시설' 방문

GS건설은 지난 12일 한국주재 중동지역 4개국 대사들이 여수 GS칼텍스 공장내 'No.3 중질유분해 탈황시설(HOU)'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일행은 외교교통사 주관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예정지 탐사차 여수를 방문했다가 평소 관심있는 플랜트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둘러 본 오만의 모하메드 살림 알하리 대사는 "한국의 플랜트 기술력과 규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GS건설측은 말했다.

사건 왼쪽부터 모하메드 살림 알하리 주한 오만 대사, 아흐메드 유노스 알-바라 사우드 아라비



드 유노스 알-바라 사우드 아라비 대, 우상동 GS건설 해외사업총괄 (CGO) 사장.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hjang@

카드 수수료율, 미용실 > 백화점

영세업체 대체로 높아 형평성 맞게 개선해야

동네 안경점, 미용실, 일반병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골프장, 백화점, 종합병원보다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비슷한 유행별로 45개 업종을 묶어 매출 건전성, 수익 기여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일반가맹점 중간 기준)을 보면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은 1.50%로 가장 낮고 백화점은 2.10~2.70% 수준이었다.

반면 안경점, 제과점, 서점, 일반병원 등은 2.50% 이상이며 유흥·사치업은 가장 높은 4.50%였다.

카드사들은 매출 건전성과 수익 기

여도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 거래가 많고 매출이 큰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고 소액거래나 현금거래가 많은 영세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동네 미장원, 안경점 등의 수수료율이 3%대 이상으로 골프장, 백화점 등보다 크게 높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대표가 참여하는 수수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차량 급발진

소비자 상담 급증

을 145건... 2배 늘어

도요타자동차의 급발진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차량 급발진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들이 접수한 차량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145건에 달해 하루 1건꼴로 급발진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 78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관련 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발진 관련 민원은 소형, 중형, 대형 등 배기량이나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쌀재고량 164만 예상

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무 수입량이 늘고 소비가 계속 줄어 올해 양곡연도 한국의 쌀 재고량이 164만톤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예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고량 100만톤보다 무려 64%나 증가한 것으로, 전세계 쌀 재고량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1.1%에서 올해 1.7%로 확 대될 전망이다.

통상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농산물 수요 공급 예상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쌀 재고량이 2009년 146만톤보다 12.3%, 2008년 100만톤보다 64% 각각 증가한 164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작년 쌀재고량이 146만톤에 달하는 데다가 올해 수입되는 쌀 규모가 33만톤으로 늘어나자 소비는 474만톤으로 계속 줄고 수출도 1만톤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은-전남대 오늘 '지역경제 포럼'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는 15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본부 세미나실에서 '2010년 제2회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나주rom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산업단지 중심의 호남 광역클러스터 역할과 지역경제 활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690.60 (+15.26), 코스닥지수 492.70 (+1.45), 금리 (국고채 3년) 3.71% (+0.03), 원·달러 환율 1,222.20원 (-23.90)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장남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토지매매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감정기 이하
병원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1010㎡(305평) 건물2996㎡(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400만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